**당신은 나만의 작은 숲을 갖고 있나요?**

**- 『월든』과 〈리틀 포레스트(2018)〉를 통해 본연의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출발, 나만의 집에서 고독과 사색을 즐기기**

**2. 직진, 건강한 식사를 통해 자발적 빈곤을 실현하기**

**3. 도착, 봄이 오면 나의 작은 숲을 맞이하기**

1. **결론**
2. **참고문헌**

국어국문학과 201721560 이제명

1. **서론**

우리는 모두 사회가 정해 놓은 행복과 풍요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 아등바등 일하다 결국에는 병에 걸리고 만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 모두를 갉아 먹는다. 우리는 ‘사회적 냉기’로부터 기인한 병에 걸려 본연의 ‘나’를 점차 잃게 되고 주위 세상에 쉽게 휘둘린다. 소로우는 『월든』을 통해 그가 본연의 자신을 찾게 된 여행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이는 그가 자신이 실험한 여행을 통해 얻은 값진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여 우리 또한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전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왜곡된 채 바라보고 이 책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월든』을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가 실험한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소로우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본연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방식에 조금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소로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시대를 불문한 불멸의 힘을 갖는다. 그는 우리에게 고독과 자발적인 빈곤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따라서 나는 이 글을 통해 그 여행 과정을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2018)〉을 분석할 것이다. 내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바로 『월든』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벽에 부딪힌 현대 청년들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기 때문이다. 영화 속 주인공 ‘혜원’은 우리들과 많이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혜원’이 변하는 과정에 함께 동질감을 느끼며 성장한 것이다. 나는 우리와 닮은 ‘혜원’이 소로우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숲을 찾은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소로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영화 〈리틀 포레스트(2018)〉를 연관 지어 본연의 ‘나’를 찾는 과정과 ‘나’를 찾는 것의 의의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1. **본론**

**1. 출발, 나만의 집에서 고독과 사색을 즐기기**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묘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는 고독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독’의 사전적 정의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다. 그러나 소로우가 『월든』을 통해 말하는 ‘고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의미와 사뭇 다르게 쓰인다. 그는 고독이 혼자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만의 해와 달, 그리고 별을 가진 작은 세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나는 이 의미에 따라 고독이 주는 사색의 시간이 나의 숲을 찾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다.

월든 호수에 사는 소로우와 고향 집에 내려간 혜원에게 다른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지, 심심하지는 않은지 묻는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그들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외로움과 혼동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소로우와 혜원은 고독을 즐길 뿐, 외롭지 않다. 그들 주위에는 무한한 생명의 온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우선 외로움이란 인간의 본능적인 인정(人情)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드는 감정이다. 그러나 고독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만물이 주는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상태이다. 소로우는 고독을 즐기며 만물이 내뿜는 생명의 온기를 두고 ‘진실로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우호의 감정’이라고 표현했다.

〈리틀 포레스트(2018)〉 속 혜원은 세속적인 것들에서 벗어난 고향 집에서 자신만의 고독을 한없이 즐기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소로우가 말하는 고독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번잡한 세상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혜원은 자신의 추억이 깃든 공간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며 더욱 성숙한 상태를 향해 나아간다. 혜원이 요리하는 것들은 자신의 아픈 부분 중 하나인 ‘엄마’가 어릴 적 자신에게 만들어준 음식들이다. 그녀는 엄마를 원망하지만, 엄마의 레시피와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옛 레시피를 따라 차근차근 요리하고 엄마와 작물을 나눠 먹으며 얘기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고독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 시간을 겪은 그녀는 이후 엄마의 레시피와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고독의 시간을 통해 얻은 사색의 값진 결과물이다. 남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것, 혜원은 바로 그것을 찾아낸 것이다.

누군가는 영화 속 ‘혜원’이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그녀가 정말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혜원이 친구들과 보낸 시간은 오히려 자신만의 고독을 맞이했을 때, 사색의 물꼬를 틔우는 역할을 한다. 즉, 친구들은 그녀가 고독의 시간을 마주할 용기를 전하는 것이다. 그녀는 도시에서 얻은 실패와 불안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허기’를 느낀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하고 서로의 고민을 터놓으면서 그녀는 진정한 고독을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또한 혜원은 친구들이 저마다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한다.

고독을 즐기라는 것이 앞뒤 맥락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다. 『월든』에서 소로우는 우리가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간격을 두고 서로 흉금을 터놓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명시하였다.[[1]](#footnote-1) 이런 면에서 혜원과 친구들의 관계는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이며 혜원의 친구 재하와 은숙은 자신만의 자유와 청춘을 위해 끝없이 미래를 향해 달리는 ‘정직한 순례자’인 것이다. 특히 재하는 혜원에게 바른길을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재하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어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월급날만 기다리는 자신이 싫어서 고향 집으로 왔다고 한다. 이는 소로우가 말했듯이 재하가 고독과 그를 통한 사유를 통해 본연의 자신을 찾고자 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다. 또한 혜원은 재하의 이런 말을 듣고 자신도 변화하고자 노력한다. 이처럼 서로에게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용기를 전하고 돕는 관계는 고독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좋은 영양분이 된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우선 고독이 꼭 자연 속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로우는 ‘나’를 흔드는 수많은 뉴스(가십)와 불건전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월든 호수로 제시했을 뿐이다. 나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집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소로우와 혜원이 사는 집의 외관은 현대인이 살고 있는 집들과 다르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소로우와 혜원처럼 속세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집에서 진정한 고독과 사색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집과 우리들의 집은 그 외관과 환경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는다.

집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한 건물이다. 이처럼 집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월든』이 말한 집은 외부의 위험하고 차가운 것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집의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정의에서 집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외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어 내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고독을 즐길 수 있게 하며 무한한 사색에 잠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알랭 드 보통은 어떤 공간과 희망이 일치할 때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며 집은 기억과 이성의 저장소라고 하였다.[[2]](#footnote-2) 이처럼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개인의 기억과 삶을 기록하는 것과 같다.

영화 속 ‘혜원’에게도 집은 그러한 의미이다. 집은 그녀에게 어릴 적 엄마와의 추억을 상기시키고,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고, 갓 지은 요리를 직접 해 먹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이 기억과 이성을 담고 있는 공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집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분한 고독과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집은 결국 현대인의 집도 우리에게 정신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고독과 사색의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집을 그러한 공간으로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월든 호수’이자 ‘작은 숲’이 되는 것이다.

**2. 직진, 건강한 식사를 통해 자발적 빈곤을 실현하기**

‘자발적 빈곤’은 대체 무엇일까? ‘빈곤’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모두 빈곤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벗어나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자존심을 굽히며 부단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소로우는 이것이 오히려 더 ‘빈곤’한 상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빈곤’이라는 단어에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자발적 빈곤’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이는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로우가 말하는 ‘자발적 빈곤’이란 검소한 생활과 검소한 식사를 향유하는 삶이다. 소로우가 말하는 ‘검소하다’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더 풍족한 것, 더 화려한 것을 찾다가 그 과정에서 나를 잃고 행복을 잃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소로우는 이러한 삶을 두고 ‘아름답다’고 칭하였다.

나는 현대인이 자발적 빈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로우가 논한 건강한 ‘식(食)’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는 값싸고 건강하지 않은 패스트푸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육체적 활동은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건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깨끗하게 자라고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의 가치를 알고 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좋은 식자재와 그것으로 만든 식사는 너무 비싼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좋은 식자재와 음식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혹은 직접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양상으로 불충분하고 생산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저 그런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이 『월든』의 소로우처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한 ‘식(食)’을 향유할 방법은 무엇일까? 소로우는 이에 대해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라’라고 얘기한다. 그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대신 필요할 때 한 끼만 먹는 것이, 백 가지 요리보다 제대로 된 다섯 가지 요리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음식에 과한 양념을 치는 것은 독과 같다고 말했으며 남이 해주는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사는 직접 해서 먹는 것이 문명인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직접 좋은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나를 찾는 방법의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로우를 통해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하는 이가 바로 〈리틀 포레스트(2018)〉 속 ‘혜원’이다. 혜원의 식탁은 소로우가 말한 검소한 식사의 전형과도 같다. 그녀의 식탁에는 피자, 치킨, 라면과 같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인스턴트 음식이 없다. 또한 그녀는 폭식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그녀의 식탁에는 수제비, 떡, 꽃 파스타, 콩국수, 아카시아 튀김, 밤 조림, 곶감과 같이 자연에서 갓 나온 건강한 식자재로 만든 검소하고 소박한 ‘한 그릇’이 나온다. 취업과 학업, 사랑 등에 고민하고 상처받는 현대 청년들과 꼭 닮은 혜원이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노력한다면 건강한 한 그릇의 식사를 시도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검소한 식탁이 왜 나만의 ‘작은 숲’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검소한 식탁에는 햇빛, 비, 바람, 공기 등과 같이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흡수한 농작물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소로우는 만물의 옆에는 그것의 존재를 형성하는 어떤 힘이 있으며 우리들의 바로 옆에서 가장 중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끊임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음식을 차리는 것을 꼽았다. 즉,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음식을 차리는 행위는 인간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앞서 말했듯이 영화 속, 혜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작물을 기르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하는 대사를 통해 관객에게 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진리, 조언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를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혜원이 말한 “친구들은 모른다. 나도 이곳의 토양과 공기를 먹고 자란 작물이란 걸.”이라는 대사이다. 오늘날에는 자연의 중요성을 잊은 채, 인간이 자연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현대인들이 있다.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조금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것을 모두 인간의 위주로 바꾸려고 덤벼든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혜원의 나레이션이다. 직접 작물을 기르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혜원은 도시에 살면서 여러 벌레를 징그럽게 여기고 자연을 심심하다 느끼는 친구들에게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혜원의 엄마가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말한 “기다려. 기다릴 줄 알아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라는 대사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변이 정한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를 성찰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끝없이 달리기만 한다. 소로우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3]](#footnote-3)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세상에서 엄마의 대사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무엇이든 그것이 익는 데는 그만의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우리는 한동안 이 진리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우리 자신을 끝없이 학대했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 삶을 완숙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세 번째는 혜원의 고모가 폭우에 쓰러진 벼를 세우며 말한 “입 놀릴 시간에 몸 놀리면 언젠간 끝이 나게 돼 있어.”라는 대사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에는 모든 것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우리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오랜 시간을 쉽게 간과한다. 이 때문에 자기 생각보다 일의 진척이 느려,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 미뤄질 때는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고 쉽게 힘이 빠지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우리에게 혜원의 고모가 말한 대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끝을 볼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의 시간이 걸림을 이해하고 이것을 묵묵히 행하고 기다려야 한다. 혜원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음식을 만들며 위와 같은 깨달음을 직접 얻게 된다. 우리도 혜원과 같이 ‘검소한 식(食)’을 누린다면 이와 같은 진리와 올바른 인생을 향유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에서 갓 난 작물은 그 본연의 생명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건강하다. 일례로 혜원은 재하의 토마토를 따 먹었을 때 서울에서 먹던 것들은 모두 밍밍했는데 이 토마토는 달다고 말하며 웃는다. 그때 재하는 혜원에게 “야 방금 밭에서 딴 거랑 같냐”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소로우도 『월든』을 통해 허클베리가 보스턴까지 오면서 과분이 문질려 없어졌기 때문에 불사약 성분도 사라진다고 말하며, 도시로 왔을 때 남은 것은 단지 식품으로서의 딸기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갓 딴 작물을 바로 먹는 것은 불사약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보다 좋은 의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또한 김숙(2013)에 따르면 음식은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심리적 위로는 정서적인 안정을 부른다고 하였다.[[4]](#footnote-4) 바로 이러한 장점들이 “최고의 요리는 아무래도 직접 해 먹는 게 아닐까”라는 혜원의 대사를 불러왔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덕에 검소한 ‘식(食)’을 향유하는 것이 나의 작은 숲을 찾는, 본연의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도착, 봄이 오면 나의 작은 숲을 맞이하기**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돼라.”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돼라.”

“각자는 하나의 왕국의 주인이다.”

“당신이 주체가 되어 일을 해나가되 박는 못 하나하나가 우주라는 기계의 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대갈못이 되도록 하라.”

“당신 자신의 길을 빼놓고는 모두 운명의 길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소로우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본연의 자기 자신을 찾아야만 한다. 영혼을 가진 본연의 자신을 찾는 것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굳건히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혜원은 알바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겨우 배를 채우고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 그런 자신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드립 커피 한 잔 사 먹기 힘든 신세를 한탄한다. 이러한 혜원의 모습과 같이 현대 청년들은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소로우는 사물은 변하지 않는 대신 변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였다.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진리를 찾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흔드는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남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숲을 가진 것이며 본연의 나를 찾은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소한 변화들을 통해 나만의 작은 숲을 찾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숲을 얻게 되는 시기인 ‘봄’을 말하고자 한다. 『월든』과 〈리틀 포레스트(2018)〉에서 ‘봄’은 ‘나’를 온전한 ‘나’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월든』의 봄에는 강을 얽어매고 있던 얼음이 깨지고 개울이 졸졸 흐른다. 따뜻한 햇볕은 대지에 빛을 비춰 모락모락 향을 피우고 잠들어 있던 다람쥐들과 우드척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소로우는 봄을 두고 음침하고 무기력했던 시간이 밝고 탄력 있는 시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봄’이 활기, 생명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에서는 두 번의 ‘봄’이 나온다. 이 두 ‘봄’은 혜원이 자신만의 답을 찾는, 자신의 작은 숲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봄은 그녀가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맞는 봄이다. 이 봄이 왔을 때 혜원은 “이제부터 농촌에 허투루 쓰이는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작은 숲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혜원은 막연하게 서울에 올라가면 재미있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어린 그녀가 시골집에서 사는 삶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며 매일 밥하고 풀 뽑고 하는 것이 싫다고 짜증을 내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녀는 서울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의 시간을 보낸다. 나의 숲을 갖지 않고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살아보고자 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후 배가 고파서 고향 집에 내려온 혜원은 현실을 도망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곧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해답을 찾고 시골집에서 머무르는 재하를 보며 혜원은 이러한 말을 한다. “겨울만 보내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긴 겨울을 뚫고 봄에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그녀가 첫 번째 봄에 자신을 찾는 여정의 활기찬 시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이는 그녀가 자신의 작은 숲을 찾은 소극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봄은 고향에서의 일 년을 보낸 혜원이 잠시 서울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맞이하는 봄이다. 이때의 봄은 혜원이 앞선 봄에서 시작한 여행이 거의 끝나가 드디어 자신만의 숲을 찾은 때와 같다. 이 시기에 그녀는 전과 달리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우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쉽게 상처받던 전과 달리 이제는 진심을 다해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한다. 또한 자존심이 상해서 문제는 해결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며 고통을 회피하던 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문제를 마주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찾아 요리하며 더는 자신을 떠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잠시 서울로 돌아간 혜원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녀가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일궈낸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일하면서 웃기도 하고 서울의 옥탑방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갖는다. 그녀의 옥탑방 작은 화분에서 잎을 낸 식물은 그녀가 과거에 힘들었던 서울에서도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로우는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리를 다루면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되어 변화나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영화 속에서 변화한 혜원이 고향 집이 아닌 도시에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일궈내는 것을 보며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마음속 나만의 작은 숲을 가졌을 때는 그 어디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연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삶을 개척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한 혜원처럼 우리만의 ‘봄’을 마주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고독과 자발적 빈곤을 천천히 실행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소로우와 같은 삶을, 변화한 혜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1. **결론**

우리는 모두 가슴 속에 진정한 ‘나’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월든』과 〈리틀 포레스트(2018)〉는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도하라. 나를 찾는다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소로우도 혜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릴 뿐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작은 숲을 찾을 수 있다. 불안한 우리에게 영화 속 혜원의 엄마가 남긴 편지는 큰 힘을 준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엄마는 이제 이 대문을 걸어 나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갈 거야.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늘 말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 같아. 아빠가 영영 떠난 후에도 엄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지금 우리 두 사람 잘 돌아오기 위한 긴 여행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자.

나는 이 글이 불안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변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도록 돕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오늘날 청년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무엇인가를 대할 때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서도 ‘나’가 더 좋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길 바란다. 아주 심기를 통해 겨울 서릿발에도 뿌리가 들떠 죽지 않을 힘을 가진 양파처럼, 그래서 봄에 심은 양파보다 몇 배는 달고 단단한 양파처럼 우리도 이 힘든 여행을 겪은 이후에는 더욱더 단단하고 알찬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참고문헌**

저서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강승영 역, 은행나무, 2011.

- 알랭 드 보통, 『행복의 건축』, 정영목 역, 청미래, 2011.

논문

- 이미경, 「음식치료와 자기효능감, 생활만족,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연구」, 영산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 학위, 2016.

기타(영화)

- 임순례, 〈리틀 포레스트〉, 2018.

1.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강승영 역, 은행나무, 2011, p. 206. [↑](#footnote-ref-1)
2. 알랭 드 보통, 『행복의 건축』, 정영목 역, 청미래, 2011, p. 52. [↑](#footnote-ref-2)
3.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강승영 역, 은행나무, 2011, p. 142. [↑](#footnote-ref-3)
4. 이미경, 「음식치료와 자기효능감, 생활만족,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연구」, 영산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 학위, 2016, p. 40 참고. [↑](#footnote-ref-4)